College of Nursing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번지/ TEL 02-740-8802

발행인 **이인숙** 편집인 **최희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소식지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제4호)

INDEX

1면 인사말 – 이명선 간호과학연구소장

2면 간호대학 소식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교수동정
박성애 교수 – 정년퇴임
조성현 교수 – 신임교수 소개
최명애 교수 –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선정
박현애 교수 – 세계간호정보학회 회장 선출
송미순 교수 – 시그마 학회 회장 선출
▷KOICA의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모자보건사업 프로젝트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선정
▷간호대학 – 서울대학교병원 시뮬레이션 센터 이용을 위한 MOU 체결
▷간호대학 – 서울대학교병원간호본부교류
▷간호대학 환경개선

8면 학교행사
▷국제교류 – 오이타, 치바 학생교류, UIC 방문
▷입시홍보프로그램 – 진로체험, 고교교사 초청간담회, 간호대 CAMP
▷제 4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2012년도 하계 간호대학 교수 워크샵
▷Bionursing 세미나

11면 학생활동 I 학부
▷2012년도 간호대학 학생회 활동
▷동아리탐방 – SNUrsing

12면 학생활동 I 대학원
▷나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유학생활 (김지연, 박다인, Eric)
▷교수–대학원생 워크샵

15면 동문탐방
▷이현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조명숙 서울삼성병원 간호본부장
▷김경옥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19면 발전기금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이명선입니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 법인화 원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힘찬 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연천 총장님의 리더십으로 지식과 학문의 탐구 및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을 통해 서울대학교 세계 10위권 도약이라는 꿈을 향해 모두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도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학문적 이념과 이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이인숙 학장님 이하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실습 적용 및 프리셉터 활용 등 새로운 교육 전략을 도입하여 학부생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원교과과정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이외에 교수들의 다양한 연구와 사업으로 간호대학의 동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우리 교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간호학의 지평"이라는 학술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대학은 학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 개발을 선도할 평창그린바이오 캠퍼스 내에 웰니스케어 연구소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건강"이 키워드가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초일류 간호대학이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간호의 임상 현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유능한 임상 실무자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우리의 간호를 통해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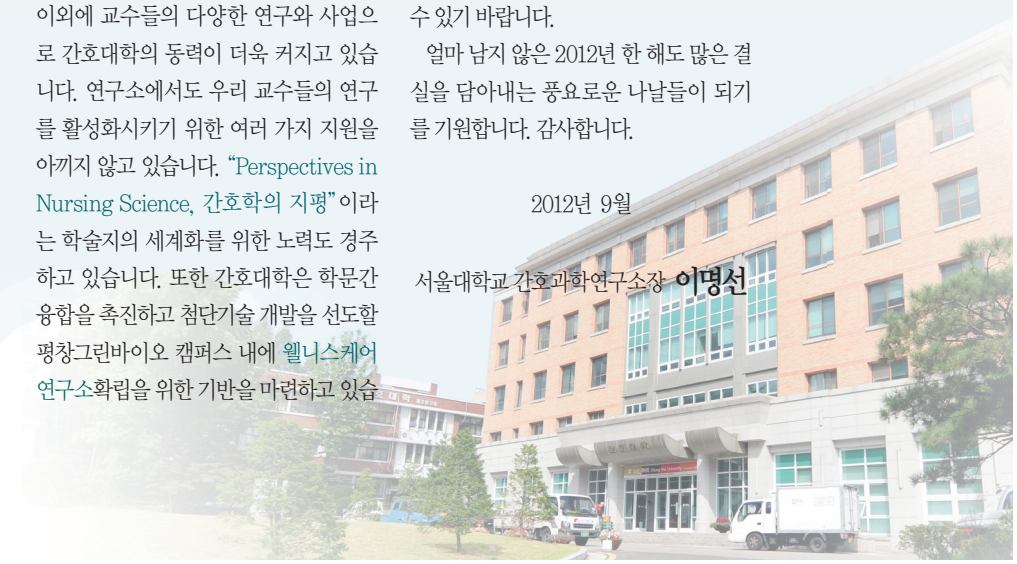
우리 간호대학은 학교를 사랑하는 동문들의 협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동창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설립된 교육연구재단은 많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으로 간호대학 발전에 두터운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과 동문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인본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고귀한 간호를 더욱 빛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한 해도 많은 결실을 담아내는 풍요로운 나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이명선**



간호대학 소식 01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1. 국제학술대회 개최

5월 31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웰니스케어 센터의 현재와 미래(Academic Nurse-Managed Wellness Centers : Integrating Education, Research, and Health Service)"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필리핀, 일본, 몽골, 대만에서 29명의 교수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는 교수, 대학원생 등 190여 명이 참석하여 Dr. Lenore K. Resick(Duquesne University, USA), Dr. Diana Lee(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hina), Dr. Yu Liu(Peking University, China), Dr. Woi-Hyun Hong(Kyungnam University, Korea), Dr. Misoon Song(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웰니스케어 센터 관련 다양한 연구결과와 전망, 방법에 관한 강연을 들었고 간호대학 중심 웰니스케어 센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날 78개의 논문 초록이 포스터로 발표되어 다양한 간호 연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개최

3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5회의 수요학술세미나와 1회의 다학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수요학술세미나는 역사, 예술 등 간호와 연관이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다루었다. 그리고 다학제 심포지엄의 주제는 "중독문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최된 수요학술세미나는 간호대학 대학원생과 학부생,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교수, 기타 외부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을 넓히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 신, 구 연구소장 이 · 취임

김진현 교수님이 소장직을 마치고 8월 20일에 이명선 교수님이 제10대 신임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임기는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아울러 소장을 포함한 11명의 운영위원이 새로이 위촉되었다.

신임 소장은 앞으로 교수와 학생이 주로 참여한 연구 활동에서 더 나아가 임상실무자들과 연계된 산학협동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간호 실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간호 지식과 이론 및 중재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의 간호실무를 안내할 간호이론의 개발로 이어져 간호학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교수, 대학원생 및 임상실무자들이 풍성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발전된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얻도록 위하여 수요학술세미나, 저명학자 초청 강좌 및 국내·국제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 간호학자가 될 대학원생들에게는 통계 및 영어 글쓰기 특강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능력 함양에 힘쓰도록 할 것이다.

4.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한 논문 작성법 특강 개최

8월 31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4호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한 논문 작성법"을 주제로 특강이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대학원생, 학부생 50명이 참석하여 논문 작성을 위한 맞춤법, 띄어쓰기, 인용한 참고문헌의 작성 예를 배우고, 실제 쓰여진 논문을 검토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글을 다시 작성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5.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주제	연자 (소속)
9월 12일	신입간호사의 학교-직장 이행과정과 이직 관련요인	조성현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9월 26일	걱정마세요. 응급환자이송 안전합니다.	최희강 팀장 (서울대학교병원 응급간호팀)
11월 14일	베르샤유 궁전과 루이 14세의 절대왕권	손정훈 교수 (아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11월 28일	사극에 보이는 조선의 법과 형벌	심재우 교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인문학부)
12월 5일	조직학의 관점에서 본 간호사, 간호서비스, 간호조직	유명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간호대학 소식 02

교수 동정

박성애 교수 정년퇴임

Interviewer 09 한새미, 11 오진경, 12 이경민

1. 올해 정년퇴임을 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지금의 1,2,3 학년 학생들은 교수님의 명강의를 한 번도 못 듣게 되어 버렸는데요. 그 학생들을 위해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 드립니다.

A) 제가 1966년에 대학을 들어간 후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났는데, 반세기 전의 간호학 수준은 학문으로서의 위치나 독자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대 간호대에 간호에 대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입학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학생으로 졸업 후 취직이 쉽다는 아버지와 담임 선생임의 권유로 간호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도 모르고 들어오게 되었으니까요. 막상 간호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3, 4학년 실습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3차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간호학의 독자성이 미약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오더만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싫었고, 간호학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임상은 치료 중심이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학문' 을 하고 싶어 학부를 졸업 한 후에는 보건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어요. 대학원 졸업 이후에 7년 동안 간호대 조교로 일하다가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되었죠.

얼마 전 8월 말에 42년 여 동안 건강하게 교수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교수라는 목표를 뚜렷이 놓고 대학을 진학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다른 학생들도 저와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간호 쪽에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대학 생활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어요. 또 관악에서 공부를 하다가 연건으로 오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고학년들은 임상 실습에서 의사 중심의 실습 때문에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이상이 현실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면, 노력의 결과로 경력도 쌓고 성과도 얻게 됩니다.

저의 경우 '간호관리학' 이라는 분야는 제 학부 시절 때는 없었던 분야인데, 간호가 제도적, 행정적인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생각해 그 분야에 있어 간호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간호관리학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수라는 구체적 목표가 없었지만 조교 생활을 7년 동안이나 하면서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노력한 것이 지금의 결과가 되었고요.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도 따랐고, 다른 선후배 교수님들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험'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 때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실습한 경험만을 가지고 장래를 구상하다 보면 실망하기 쉬운데, 너무 지금의 실망감만 보지 말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 멀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을 한다고 해서 꼭 병원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선배들께서는 어떤 진로를 택했는지도 보고, 그때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꼭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깊게 생각하고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늘 성실한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 가도록 하세요. 저는 제가 만약 그 때의 7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조교로 있지 않았다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선배들이 이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많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아니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이 몇 십 년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할 일은 후학들의 몫이죠. 다른 학문과의 접목과 함께 고유한 영역의 확대로 우리 학문의 미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간호학의 지평을 더 넓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대 학생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학문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어주기를 바라요.

2. 간호관리학을 전공하고 갈 수 있는 진로나, 간호관리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많은 사람들이 간호행정과 간호관리를 혼용해서 쓰곤 하지만, 간호행정은 공공분야의 특징, 관리는 경영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간호사가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동안은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관리에 대한 학문적인 아웃풋(output)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간호행위가 얼만큼의 효율을 주는지 그 학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학에 대한 연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호사들이 의사나 다른 전문직과 경쟁하려면 간호분야에 얼마만큼을 투입했는데, 그것이 간호 조직이나 병원에 얼만큼의 기여를 했는지가 계량적인 결과로서 제시되어야 해요. 의료수가와 비슷한 '간호수가' 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간호수가' 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간호행위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는 단순히 간호의 효율을 증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료계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으로 의

료법 내의 하위개념으로서의 '간호법' 이 아닌 간호인만의 독자적인 '간호법' 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교수님께서 임기 중 가장 보람찼던 일, 또한 가장 힘들었던 일을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또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사실 저는 젊었을 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금 기억에 남는 학생 중 한 명은 막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창기의 학생인데요. 그 남학생은 여학생 무리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간호학과에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한번은 그 학생이 결석도 너무 많고, 시험도 안 보고, 레포트도 내지 않아서 점수를 줄 수 없었어요. 그 때는 학년제여서 한 과목을 F를 받으면 진급을 하지 못하고 다시 1년을 더 다녀야 해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F를 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학부를 1년 더 다니게 됐는데, 현재는 수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저 교수님께 F받았던 학생입니다."라며 자신을 기억하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그 학생이 기억이 남네요. 또 한 명은 현재 교수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학부 때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복학을 해서 무사히 졸업을 하고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나의 정년 퇴임 기사를 읽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부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지만 현재는 전공을 살려 교수로 정진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이 두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졸업생 중 학부 때 방황을 했던 사람도 졸업을 한 후에는 어디를 가서 있든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학부 때 방황하는 학생들도 잘 지도해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준에서 못 따라온다고 학생들을 다그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고요.

4. 교육자의 길을 정말 오래도록 걸어오셨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지셨던 남다른 철학이나 이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이라는 것은 스승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 서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게 약속장소에 항상 30분 정도 먼저 나가있는 저만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항상 일찍 일어나서 비서보다 먼저 출근하곤 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찍 나오는 것을 강요하진 않았고, 그저 늦지만 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산 교육이란 무엇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성실함이 곧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꼭 교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 역시 늘 교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것은 간호사로서도 마이너스 요인이죠. 교육자는 항상 학생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생활태도와 정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수님께 '간호' 란 무엇이었나요?

A) 저는 간호에 거의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가족,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건강에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것이 제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건강은 삶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고,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간호' 를 전공했다는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호를 배워서 좋다' 는 것이 지금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사회에 나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간호학과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게 될 거에요. 간호는 제 커리어 자체일 뿐만 아니라 제 삶을 풍족하게 해준 중요하고 소중한 학문, 제 인생의 key point입니다.

6. 그렇다면 앞으로 간호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계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A) 제가 간호관리학 분야로 진출한 것도 간호의 독자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한 것이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의학 등 타 학문에 비해 간호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학만의 독자성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후학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관리학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이야기 했듯이 간호행위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법적, 제도적, 학문적인 간호의 독자성이 앞으로 훨씬 더 공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A)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다른 백여 개의 간호대학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간호대학 학장이었을 때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서울대인으로서 갖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다른 학교 교수들과는 다르다."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과정 자체도 다르고, 서울대인으로서 갖는 사명감도 다르죠. 여러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간호를 키워왔던 선배들처럼 세계적으로 간호학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소명 의식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대 간호대학을 키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를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라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다른 학문 분야에 뒤쳐지지 않도록 간호학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임교수-조성현 교수(간호관리학)

안녕하세요? 이번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일하게 된 조성현이라고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1학년 수업만 있어서 다른 학년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네요. 뉴스레터를 통해나마 인사드립니다. 제가 강의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간호관리학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1993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아과병동, QA전담반에서 4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취득했고, 바로 미국으로 옮겨가서 2002년에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귀국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1년 근무했고, 2003년부터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9년간 일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내가 왜 옮기려 하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보았습니다. 물론 모교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큰 기쁨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첫 출근을 하며 내 안의 '초심' 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늘 첫 출발, 첫 마음이 중요하기에.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초심으로 다가온 것은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였습니다. 본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아닌 주변 사람, 얼굴은 모르지만 나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자는 초심이었습니다.

문득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이 얼마나 내 사고와 행동을 편협하게 만드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뼛속 깊이 내 안에 파고들어, 누리면서도 누린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미 많은데, 거기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됐다는 게 하나 더 늘 것 같습니다. '서울대' 라는 이유하나로 너무 많이, 때로는 부당하게 누리는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누리는 것' 에는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서울대 간호대학이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아,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는데, 말 먼저 해버렸으니 이제부터 큰일입니다!

박현애 교수 세계간호정보학회장 선출

박현애 교수가 지난 6월 23~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간호정보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직에 선출됐다.

세계간호정보학회는 세계의료정보학회 산하 기관으로 1982년에 설립됐다. 28개 나라가 정식 회원국으로 있으며 학회는 대륙 순회형식으로 2~3년 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에는 40여개국 600~800명 가량의 간호정보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현애 교수는 간호정보학·보건의료정보학 분야의 연구·교육 성과와 다양한 국제활동 업적을 인정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현애 교수는 2006년부터 세계간호정보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세계의료정보학회 부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는 제9차 학회 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최명애 교수,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 FAAN) 선정

2012년 10월 13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제 39회 미국 간호학술원(American Academy of Nursing)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미국 간호학술원 회원 입회식이 거행되었고 입회식에서 신임회원 회원증을 수여받았다.

최명애교수는 근위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근위축의 병태생리적 기전을 규명하고 근거기반간호를 구축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기초간호 과학과목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기초간호과학을 정립하여 간호학에서 기초 간호과학 교육이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하였다.

미국 간호학술원은 1973년에 창립되었고 현재 1,800여 명의 간호교육자, 연구자, 실무자, 정책입안자로 구성된다. 미국간호학술원 회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간호학분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 중 하나로, 간호교육, 관리, 실무, 정책 및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미국 학술원회원 2명의 추천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최명애교수는 1987년부터 서울대간호대교수로 재직 중으로 최근 2년 간(2010~2011) 한국간호과학회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미순 교수 Sigma Theta Tau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학회장 선출

한국시그마데타타우(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가 6월 27일 개최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송미순 교수가 취임했다.

학회는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등 후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송미순 교수는 한국 시그마학회의 회장으로서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의 수월성을 향한 전통을 이어가며 한국간호의 리더십 개발과 지식발전을 위해 시그마의 국제적 조직망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시그마학회 소개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은 1922년에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에서 간호학의 excellence를 지향하며 탄생된 honor society가 성장하여 국제적 조직으로 발전된 된 학회이다. STTI는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미, 오세아니아에 20개의 지역조직이 있고, 이 지역 조직에는 486개의 chapter에 12만 5천명의 회원이 있다. 아시아지역에는 한국을 비롯한 싱가폴, 홍콩, 대만, 파키스탄, 일본 등 6개국이 각기 chapter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그마학회는 간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조직망이 잘 이루어진 학회이며 연륜이 오랜 만큼 간호학계의 리더 배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간호학문의 최신 경향을 잘 소통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하다.

간호대학 소식 03

KOICA의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주 모자보건사업 프로젝트

Healthy Mom Happy Child
KOICA-SNU-Ethiopia Project

간호대학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첫 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책임연구원으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에 시작되어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코이카에서 연구사업비 18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저 이외에도 이인숙 학장님, 박영숙 교수님, 채선미 교수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다양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코이카의 꿈'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코이카 사업이 잘 알려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낙후되어 있던 우리나라도 당시 선진국이었던 여러 나라로부터 이러한 공적개발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루고 보건의료시설도 갖추어 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수혜국으로 그 위치를 달리하게 되었다니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11년 10월에 코이카사전평가단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면서 이 사업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우리나라의 도움의 손길이 그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기대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그 곳을 보고 나니 굽이 굽이 산을 돌아 마을이 흩어져 있고,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에서 변화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했던 코이카 사업에 대한 확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간호대학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티그라이주 킬테올레로군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시간여를 가야하는 북부의 도시 메켈레에서 다시 한두 시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새천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8가지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네 번째 목표인 아동의 사망률 감소와 다섯 번째 목표인 모성 사망률 감소가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새천년 목표달성을 위해 본 사업에서는 첫째, 현지에 있는 조산사, 간호사들과 health extension worker라 불리는 보건지소의 건강요원 등을 훈련시켜 역량을 강화하는 것, 둘째,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모자보건과 전반적인 위생관념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셋째, 지역 내 다섯 개 보건소의 수도와 전기시설을 보완하여 보건소의 운영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 넷째, 보건의료 관련자들의 한국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간호대 졸업생인 오상준이 3월부터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하나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저희 입장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면서는 하나, 하나 그곳에서 변화의 물결을 확인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오늘도 사업구상에 머리를 맞대곤 합니다.

돌아오는 겨울방학에는 '국제보건의료와 간호' 라는 대학원 과목을 열고 수강하는 학생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조사에도 참여하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제보건의료에 관심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도 점차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현장체험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앞으로 "global health"의 전문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이 프로젝트가 모두의 소망대로 결실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간호대학 소식 04

2012년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2학년도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과제 심사결과 우리 대학 4학년 강은별, 박지예, 진희경 학생의 팀(지도교수 최명애)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P)은 이공계 학부생들에게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예비 연구자로서의 연구능력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기간 : 2012년 5월–10월
지원규모 : 10,000,000 원
참가학생 : 4학년 강은별, 박지예, 진희경
연구조교 : 양지수

선정된 연구과제명 : 『시스플라틴(cisplatin) 항암제에 의해 유발된 근위축 회복방안개발』
과제내용 : 항암화학요법 중 고형암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Cisplatin은 광범위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어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용량제한성 부작용으로 신경병증성통증과 위장관계 합병증을 유발한다. 신경병증성통증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감소되면 근질량이 감소되고 근위축이 진행된다. 또한 식욕부진에 의한 영양섭취 저하는 골격근질량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플라틴 항암제 투여로 유발되는 근위축의 회복방안으로 신경보호작용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Dehydroepiandrosterone (DHEA)과 Glutathione(GSH)을 투여하여 시스플라틴 항암제에의해 유발된 근위축이 회복되는지를 규명하여 근위축 회복방안을 개발하고자한다.

간호대학 소식 05

간호대학-서울대학교 병원 시뮬레이션 센터 이용을 위한 MOU 체결

지난 9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제 1회의실에서 우리대학과 서울대학교 병원이 시뮬레이션센터 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대학 이인숙 학장, 교수진 및 서울대병원의 정희원 병원장, 김승협 진료부원장, 이몽열 행정처장, 이정렬 기획조정실장, 박중신 교육연구부장, 송경자 간호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협약식은 서울대학교병원 유정숙 간호행정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과보고, 협약서 개요 소개, 그리고 협약서 체결로 이어졌다. 간호대학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주 10시간의 센터 이용시간을 부여함으로서 신규간호사들이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 술기 및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임상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서울대병원 간호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06

간호대학-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교류

1. 2012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학생실습 간담회

지난 2012년 4월 13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4호에서 임상프리셉터쉽을 적용한 학생실습교육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학생실습 간담회가 있었다. 간호대학 이인숙 학장을 비롯한 교수 및 시간강사 22명,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및 겸임교수 33명이 참석하여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해 돌아보고 프리셉터쉽 운영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워크샵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는 지난 7월 4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104호에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워크샵은 시뮬레이션 위원장인 송미순 교수의 인사로 시작하여 서은영 교수가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배경 및 과정을 발표하였고, 시뮬레이션 실습 사례 동영상 관람,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학생실습교육 경험을 각 담당과목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번워크샵에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학생 및 신규간호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며,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을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추후 신규간호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간호본부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며 워크샵을 마쳤다.

3. 2012년도 제2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협의회

2012년 8월 30일 함춘원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의 협의회가 있었다.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지난 학기 간호본부와 간호대학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고,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글로벌 간호경쟁력 향상을 위해 International Nursing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07

간호대학 환경개선

연구동 입구 로비

연구동 휴게실

학생휴게실 1

학생휴게실 2

뒤뜰 정원

학교행사 01

국제교류 – 2012년도 시카고 대학, 치바 대학, 오이타 대학과의 국제교류

● Chiba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하계 단기 연수

본교 신정원(10), 신현주(10), 이원영(09), 조아라(09) 학부생 4명은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Chiba University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국제교류프로그램에는 인도네시아 학생 2명, 중국 학생 2명이 함께 하였고, 문화교류 세미나, Kashiwanoha Campus의 Pathology Chuo Health & Welfare Center, Chiba University Hospital, Local psychiatric medical center, Mitsuwadai Nursery School등을 방문하고 Nursing Biophysics Research 세미나를 가졌다.

●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하계 단기 연수

본교 이남주 교수를 포함하여 박다은(석사과정), 장해나(석사과정), 고혜연(10), 박소영(10), 김영비(11), 명혜원(11), 이지현(10) 8명은 지난 201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일본의 간호, 일본의 보건 및 복지체계에 대한 강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Yufuin Kourseinenkin Hospital(재활병원), Oita Prefectural Hospital(오이타현립병원), Shono Maternity Clinic(조산원), Oita Public Health Center(오이타현립보건소), Hyakkaen Nursing Home(요양원) 등을 방문함으로써 일본 간호 및 의료체계를 공부하고, 일본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Chiba University & Oita University 학생들의 본교 방문

Chiba University의 MayukoTsujinmura교수를 비롯한 학부생 4명과 Oita University의 Masako Takano 교수와 대학원생 2명, 학부생 4명은 2012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하계단기연수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연수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간호대학(연건 캠퍼스), 박물관, 시뮬레이션 랩, 아산병원, Green Hill Nursing Home 및 송파 보건소 등을 방문하였다. 강의 및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한국 간호 및 의료체계를 공부하고, 동대문, 창덕궁 등을 방문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하계 단기 연수

김한나(09), 이지연(10), 정민주(10), 황지원(09), 박지예(09), 황신영(09) 총 6명의 학부생이 지난 2012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4주간 미국의 Illinois, Chicago에 위치한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로 하계 단기 연수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생리학, 병리학과 질병에 따른 케이스를 다루는 포괄적인 강의, 세미나, 김미자 교수의 리더십 강의, 미국 간호사의 실무, 간호 교육 체험,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간호에 대한 체험 등을 통한 국제적 안목 향상, 전반적인 미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enter의 outpatient clinical center, Emergency Department, Simulation Lab 등을 견학하였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시카고 동문회와의 만남

2012년 하계 시카고 UIC 연수팀 6명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시카고 동문회(회장 최현희)에 초대되어 과거의 학교 이야기, 시카고 생활 이야기, 간호학과 선배로서의 격려 말씀 등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2012년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발표회

(1) 1차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3일(월) 오후 1시, 본관 102호
- 대상 : 2, 3학년
- 발표자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정민주
  - ·Chiba University chool of Nursing – 신정원, 이원영
  -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 김영비, 박소영

(2) 2차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9월 7일(금) 오후 1시, 본관 102호
- 대상 : 1, 4학년
- 발표자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정민주
  - ·Chiba University chool of Nursing – 조아라
  -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 박소영, 고혜연

학교행사 02

입시홍보프로그램

● 간호진로체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올 5월부터 본교의 동문, 재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간호대학의 역사, 교과과정, 졸업 후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 간호대학의 교육시설(Simulation실, Skill' s lab 등), 간호학박물관 등의 견학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간호교육 및 임상현장을 미리 체험하게 된다. 또한 본교 동문 중 선정된 간호 멘토와 개별 인터뷰 시간을 가지며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데에 필요한 적성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서울대학교 암병원 등)을 직접 견학하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를 만남으로써, 고교생들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간호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주중 상시 운영되며 약 2시간정도 소요된다. 신청가능대상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중 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 고교입시담당교사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에서 고교입시담당교사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대학 소식을 전하고, 입학전형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고교-대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사간담회는 본교의 교수 및 대학 당국자가 주체가 되어 서울, 경기, 충청, 인천, 강원권역의 약 130여개의 고교를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30여명의 입시담당교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2013년도 간호대학 입학전형 안내, 입학사정관제 전형 안내, 질의응답 및 간호대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참여한 입시담당교사들은 간호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과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 측에서도 고교담당교사로부터 간호대학에 대한 관심사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홍보뿐만 아니라 간호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간호학 캠프

지난 7월 23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간호학 캠프'의 참가를 위하여 미래 간호계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간호학 캠프'는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간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열린 '간호학 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주최하였으며, 간호 분야에 관심 있는 30명의 고등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60여명의 사전 신청자 중 모의고사 성적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간호학의 소양에 적합하다고 여겨져 입시홍보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이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개회식 및 폐회식, 오리엔테이션, 간호대 교수 특별 강연, 간호대학 투어, 연건캠퍼스 및 병원 투어, 시뮬레이션 실습 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오전에는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의 "My nursing Story" 특별 강연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 간호학을 소개하고,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자체 평가결과 응답자 27명의 학생 중 5명은 "교수님께서 진학 후 진로나 구체적인 학교 생활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정말 유익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 후 간호대학의 시설을 둘러보고, 간호학의 다양한 분야를 안내하고자, 2007년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된 간호학 박물관,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지식과 임상수기 등을 교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실, 간호대학 학생들의 기본간호수기 자신감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어있는 skill' s lab, 그밖에 평소에 자각하기 어려운 심리 생리적 기능을 기계로 모니터링하고, 신체기능을 훈련하는 바이오피드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바이오피드백실, 근육염색, 근육 촬영 및 분석 등의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기초간호과학실, 간호정보통계연구실, 컴퓨터교육실, 강의실 등을 돌아보며 간호대학 투어를 진행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연건캠퍼스 및 병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병원실습을 나가는 간호대학 3,4학년들을 위한 간호대학의 기숙사 '함춘사', 경모궁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암병원을 둘러보았고, 암병원 의암정보교육센터에서는 병원 소개 및 간호가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환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강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직접 간호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활력징후 측정, 자연분만의 3가지 주제로 시뮬레이션 실습 체험 시간을 마련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자체 평가결과 응답자 27명 중 20명이 "시뮬레이션 체험이 너무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시간을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2 서울대학교 간호학 캠프 수료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간호학 캠프에서는 스널싱(SNUrsing)이라는 간호홍보동아리가 적극 참여하여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에게 먼저 수험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학업, 수험, 입시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언해주고, 간호학 전공의 강점 및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 개척 가능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간호학 캠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호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 하고, 그들에게 진로탐색에 있어서 등대의 불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사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행사 03

제 4회 멘토-멘티결연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2012년 6월 15일 오후 5시 간호대학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와 공동주관으로 제 4회 멘토-멘티결연식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간호전공자로서 최고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미 전문가의 자리에 있는 선배를 멘토로 결연하여 멘티인 학생의 진로설계에 조언과 지원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대 학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다양한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 날 이인숙 간호대학 학장 및 동창회 임원 축사,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고상근 교수(리더십 개발부장)의 '간호학에서 필요한 리더십' 특강, 그리고 작년멘토와멘티의 경험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리셉션으로 훈훈하게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22쌍의 멘토-멘티가 결연식을 가졌으며, 1~3회 결연식에서 맺어진 멘토-멘티를 비롯하여,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과 교수 및 학교 동문 선후배가 참석하여 이들을 축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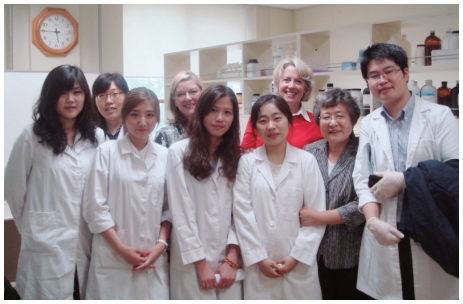
학교행사 04

2012년도 하계 간호대학 교수 워크샵

2012년 6월 27일 2012년 간호대학 교수 하계워크샵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교과과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를 하였다. 현행 학부교과과정 검토, 간호평가원의 교육성과 지침과 비교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김혜숙(Haesook Suzie Kim,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간호대학 명예교수) 박사의 '학부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방법 및 전략 제안' 강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학부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학교행사 05

Bionursing 세미나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502호에서 기초간호과학 세미나(Seminar on Bionursing)가 있었다. 최명애 교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기초간호학 실험실(Bionnursing laboratory)소개, 기초간호학 연구 발표(김진일, 양지수), Dr. Mariann Piano, University of Illonois at Chicago의 초청강연(Unhealthy alcohol consumption)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평소 기초간호과학에 관심있던 많은 학부생, 대학원생들, 교수, 기초간호자연과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 연자소개**

Introduction to Bionursing laboratory
Myoung-AeChoe, PhD, RN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ffects of unilateral sciatic nerve injury on unaffected hindlimb muscles of rats
Kim, Jin il, Doctoral Candidate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Gwangju

Effect of anorexia and neuropathic pain induced by Cisplatin on hindlimb muscles of rat
Gee Su Yang, RN, MSN
Teaching Assistant, Seoul National University

Unhealthy alcohol consumption
Mariann Piano, PhD, FAAN
Professor and Interim Head for Department of Biobehavioral Health Scienc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

학생활동 | 학부 01

2012년도 간호대 학생회 활동

21대 간호대 학생회장 장명석

안녕하십니까? 21대 간호대 학생회장 장명석입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12학번 새내기 정시 논술고사 안내부터 시작해서 벌써 여름방학을 넘기고 이제 22대 학생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21대 간호대 학생회는 학부생들에게 자치공간의 확보 그리고 간호대 가족들 모두와의 소통 원활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교수님들과의 소통, 행정실과의 협력 관계 향상, 선후배간의 우정 증대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성과들은 30명에 가까운 학생회 집행부원들의 열정적인 사업 진행과 학년 대표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의 적극적 협조, 그리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교수님들과 행정실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 속에 "12학번 수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2학번 새내기 배움터", "12학번 장터 지원", "관악 캠퍼스 간호학과방 리폼 공사"등 새내기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스터디 그룹 지원", "2학년 대상 24시간 시험공부 강의실 개방", "세미나실 확보 사업", "전공 과목 별 공부 방법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학업 지원 프로그램도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업적 프로그램과 새내기들 프로그램 이외에도 "함춘사 영화제", "연건 캠퍼스 대동제", "총개강 파티", "간호대 운동회", "간호대 총 엠티"와 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간호대 동아리 창단 지원", "간호대 커뮤니티 홈페이지 제작"과 같은 우리 간호대생들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함춘사 무선 인터넷 문제 해결", "관악-연건 셔틀버스 운영 정상화", "간호대 홈페이지 개선 사업 논의 참여", "간호학 캠프", "오픈 캠퍼스", "간호대 뉴스레터 학생파트 지원"등과 같은 학교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호대 학생회 페이스북 운영", "스피치&프리젠테이션 강의", "함춘사 아침식사 지원", "간호대 총 학과점퍼 주문 제작"등과 같은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간호대의 협력과 단합 그리고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과 단결에 많은 중점을 두었었고, 이를 기특하게 여겨주시는 동창회, 교수님들, 그리고 이외 모든 학교 구성원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앞서 말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 짓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캠퍼스 간호학과방 리폼 공사

간호대 총엠티

함춘사 영화제

학생회 시험기간 간식 제공 이벤트

봄 대동제

학생활동 | 학부 02

동아리 탐방 – SNUrsing

09 장문호

1. SNUrsing 간호대학교 홍보동아리

서울대 간호대학 홍보동아리 SNUrsing은 2012년 7월 23일 간호학캠프를 시작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간호대학교 홍보 동아리입니다. SNU(Seoul National University)와 Nursing이 합쳐진 말로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을 뜻합니다.

2. 목표

1) 간호학의 정의와 학문의 우수성을 홍보

오직 Cure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Care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학문인 간호학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고 그에 맞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을 서울대 간호학과에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세계 일류대학교인 동시에 국내 간호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대 간호대학교 학생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재학생들 혹은 서울대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동아리 내에서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선배들과 교류하고 더 나아가 서울대 간호학과에 관심을 갖는 입시생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아 학교와 학과에 애정과 목표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 입시홍보프로그램 및 간호학캠프
학과홍보를 위해 우수고교 혹은 우수학생들을 초청하여 간호학캠프를 주최하고 전공소개 및 입시상담, 학과생활 등을 상담하여 서울대 간호대학을 홍보합니다.

• 정기회의
매달 첫 주에 열리는 정기회의를 통하여 SNUrsing은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기획하는 등 서울대 간호대학의 홍보브레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화보촬영
SNUrsing은 매년 진행되는 화보나 홍보지, 각종 광고촬영에 참여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연건캠퍼스 투어 및 간호대학 시설물 투어
연건캠퍼스와 간호대학의 여러 시설물 견학을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방문하는 고등학생들과 신임교수님께 캠퍼스와 학과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학생활동 | 대학원 01

2012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수-대학원생 WORKSHOP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12시 간호대학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대학원생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스승의 날 기념행사 및 교수-대학원생 workshop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간호의 비전' 을 주제로 정년퇴임을 앞둔 박성애, 박영숙, 최명애 교수의 강연이 있었고, 최희승 교수의 SSCI 논문작성법 강의와 박초롱 졸업생의 외국대학 유학준비 발표 등 다양하고 알찬 내용이 진행되었다.

학생활동 | 대학원 02

나의 유학생활

성인간호 석사 2학기 김지연

"김지연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완벽하게 익숙해지지는 않았지만, 요즘 점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제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15살때부터 시작했던 미국에서의 생활, 8년동안의 고등학교 & 대학생활과 1년 동안의 병동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 온지도 이제 1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국시준비하고, 대학원에 입학하고, 병원생활을 시작하고 등등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많이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한번도 후회한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진심 어린 걱정과 충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고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이고, 아마 오래있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들이 무색하게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단연 "선생님은 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 오셨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석박사 과정을 위해 유학을 가는데, 선생님은 거꾸로 한국으로 돌아오셨네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차려주시는 따듯한 아침 식사와, 저녁에 빨리 들어오라 걱정해주는 부모님의 전화가 무엇보다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간호학과 심리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암 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꼭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병동생활도 정말 재미있고 신나지만, 학교생활은 매 수업시간이 설레고 신납니다. 물론 학기 중에는 과제와 발표도 많고, 시험기간에는 시험공부도 해야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날이면 정말 하루가 기대되고 즐겁습니다.

교수님과 다른 선생님들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라는 것을 대학원에 입학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좀 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특히 종양환자간호와 관련된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박사과정 후에는 간호학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끊임없는 연구와 배움을 통해 습득한 지식,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한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간호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된 학문인지도 전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후배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인을 품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시는 너무 좋은 지도교수님과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선생님들 덕분에 학교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학기 수업을 듣고 있지만, 앞으로 논문자격시험, 계획서발표 그리고 요지발표 등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항상 새로운것을 배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유학생활

성인간호 석사 2학기 박다인

1)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계기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귀국하기 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저의 미래의 모습을 꿈꾸며 큰 결심을 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중학생인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중,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과정을 마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은 간호대학에 진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면서부터 종종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한국의 한 간호대학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사촌동생과 한국 현재 간호교육과 실습경험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촌동생 그리고 임상에 계신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며 한국의 의학과 병원들은 미국 못지않게 발전하고 성장하였고, 그의 뒷받침에 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의 하나가 간호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간호계 또한 더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미국의 간호계 못지않은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교육을 마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나라로 일을 하기 위해 모국을 떠난다는 점이 안타까웠고, 그만큼 한국의 간호계가 보완점이 많으며 이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써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으며, 환자, 간호사, 의사 및 매니저 등 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고,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공로상도 몇 차례 수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 돌아가 공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병원에 알렸을 때 병원에서는 저의 work visa (H1b visa)의 sponsor가 되어줄 테니 남아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까지 해준 상태였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병원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간호대학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할 시 full scholarship을 지원해 주는 혜택 또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많은 주위 분들이 병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저 또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상경험과 academic background를 미국에서 마치는 것보다 한국 간호대학과 한국 간호 계에 직접 뛰어들어 몸소 느끼고 공부해야만이 후에 큰 목표인 한국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인재양성을 하고 연구를 하는 꿈을 이루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서 주위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공부를 하며 느낀 장·단점

한국에 돌아와 공부를 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학. 대학원 문화의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부 때와는 다르게 대학원 학생들은 다양한 field에서 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와 관점에서의 의견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차이 혹은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간호교육과 한국의 간호교육의 curriculum이 아주 유사하나, 학부 학생들 혹은 학부를 이미 졸업하여 임상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보완점과 더 많은 교육의 필요성을 몸소 느껴져서 저의 꿈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아지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어려움 중 제일 큰 부분은 언어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의학적/간호학적 지식을 영어로 배운지라 공부를 하며 내 자신이 언어적으로 많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또한 한문을 깊이 배운 적도 없는지라 더더욱 개인적인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에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약 두 달간 공부를 하였는데, 많은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한다는 것 외에도 한국어로 공부를 하려니 이미 공부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에도 수업을 들으면서 전문용어가 영어가 아닐 때, 혹은 영어이지만 발음이 미국식과는 다를 때에는 교수님 혹은 다른 학생들께 여쭈어 보아야 이해를 하곤 합니다.

3) 본인의 목표 및 비전

저의 큰 목표는 한국의 간호대학에서 많은 연구와 교육을 하여 누구보다 환자들과 가까이 있는 간호사들이 국제적 의료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대 의학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인 보다 넓은 시야와 지식 그리고 또렷한 voice를 갖고 환자들에게 간호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입니다.

나의 유학생활

Eric

For the three years that I have been here in Korea I have grown so much as a person in a way that I have realized the potentials I have which is quite far from what I have thought when I graduated college. These growth and realization may have been brought by the so called "quarter-life" period but I couldn't be gladder that all these happened because of the factors and the scenario of where I am right now. Looking back at the time before I had ever set foot in Korea, when I was still in the Philippines, two years after graduating my BS in nursing degree I found myself considered as a senior nurse in the post anesthesia care unit of the hospital where I used to work. During that time my main goal was to gain a few more years of experience and pursue "greener pastures" in the western world like most of my Filipino nurse predecessors. But before I could gain those experiences,came an opportunity for me to explore a new world and to broaden my horizon. At that time, feeling that it was the right moment for an adventure, I gladly took the opportunity even though I knew that it was going astray from my, at that time, lucid career path. And so I came, enjoyed a summer program in one of the universities in Seoul, and as it seemed like I couldn't get enough(and it is something worth putting on the resume) I enrolled in a Korean language program. It was during the time when I was taking Korean language classes that I got curious of how I can advance my professional life here in Korea and with the help of Google I came across S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s website.As I was scanning the contents of the website I was impressed and got curious of the possibility for me to be in the master's program especially when I saw the words "Psychiatric Nursing", the nursing field thatI've always wanted to be a part of (plus there was this picture of one male foreign student, which for someone who is once was a planning-to-be-another male foreign student in that nursing college looked pretty inviting). Those things, a period of one year or so, and the reactions of people when they hear or talk abou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vinced me to apply for the master's program. And now, here I am walking uphill towards the Nursing Department Buildings almost every day for two and a half semesters now.

Being a full-fledged graduate student, I now appreciate the time given for solitary study where I can contemplate on the questions that I find important on a certain topic and sometimes I get amazed and other times overwhelmed that even when a previous question has been answered there are still limitless numbers of questions that could be asked regarding the same topic. Though I find this constant contemplation of questions as an important precursor to my thesis, sometimes spending a lot of time in my own mind makes me nostalgic of human interaction. And it is a good thing that the people here are so friendly and are so accustomed to greeting someone even if they are just passing each other by in the hallway. And, of course, my need for human interaction in my graduate studies in this school wouldn't be that fulfilling if I never made friends. Luckily, I did. These friends are not just people whom I could talk about matters of academia but also of trivial things that we could laugh about. I do believe that creating a buoyant relationship between peers and professors can serve as a motivation to continue pursuing a higher degree.

Another thing that I appreciate about this school is the pool of opportunities waiting for you to dive in. First is the access to professors that have already made names in the field of nursing and second, not only available are their invaluable advice and inputs but also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their current work and studies as a teaching assistant or a research assistant. I am grateful that I am currently a research assistant because I learn so much from the experience and that it contributes so much to my professional development as a nurse.And besides being a great tool towards attaining academic greatness the research assistantship is also a source of income. Being a full time graduate student there are times when the grip of financial constraints are a bit tighter than expected so it is really great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offers opportunities for financial aid like the one I received for this semester, the SNU Global Scholarship. I consider all these opportunities as motivations to constantly improve and let myself grow bit by bit keeping in mind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now and making use of them wisely in order to break in to the field I want.

All in all my life as a graduate student he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progressing in manner that is adequately satisfying. Along with the mundane conflicting factors in the everyday life of any foreign graduate student, I more than manage to get by. Because by the end of the day when I walk out of the Yeongeon campus gate and when I see the streets of Daehangno it reminds me of the first few days when set foot here in Seoul. I was mystified, enthralled by the place -the architectures, the many posters of theater performances (literally) everywhere, the mixing sounds of street artists in Marronnier Park, and even after three years I still get fascinated by all of those things but in a perspective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during my first few days here. This makes me realize that in my transition in this quarter life period, I indeed am exploring a new world. A world that is not only a foreign and full of sceneries but a world of knowledge inquisition and inquiry that has broadened my horizon in ways that exceeded the expectations I had when I first came to this country.

동문탐방 01

이현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장(77)

Q1. 간호부장의 위치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정해져 있는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사정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관이 들어가면 곤란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융통성 있게 일을 진행하고자 노력합니다.

Q2. 본원과 삼성, 아산병원과는 다른 분당 서울대병원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본원과 비교하면 간호사나 직원 전체가 젊습니다. 분당병원을 오픈한 지 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젊은 직원들이나 의사, 간호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협력하구요. 또, 시스템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특히 EMR에서는 국내 병원 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내년 2월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더 편리한 EMR 시스템을 갖추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학회 HIMMS로부터 최고 단계인 7단계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재활간호 실습을 나오면 알겠지만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환자를 교육하기도 하고, 간호사들이 모바일EMR를 사용하여 퇴근 후에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중시하는데, 간호사가 좀 더 근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창의 학습을 많이 하여 업무의 혁신을 높이게 합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새 건물이기도 하고 로비나 병원 분위기가 밝아 환자들의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도 우리 분당 병원만의 장점입니다.

Q3. 간호사로서 일하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은 어떤가요?

분당에서는 간호사 한 사람 당 13~15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등급으로는 2등급이지만 건물이 신축이 되면 많은 간호사들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 채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1등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부에서 직무 교육, 인문학 세미나 등 각종 교육들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직원을 위한 포상제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자기계발비가 한 달에 5만원이 지급되어 책을 사서 읽거나 헬스를 하는 등 자기계발을 병원 차원에서 돕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간호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본적인 간호 기술 능력을 가늠하기 위하여 간호기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병원은 다른 병원과는 다르게 급성기의 노인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간호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건설하는 암병원과 뇌신경센터가 완공되면 그 분야의 전문 간호사들도 많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겐 매우 기회가 많은 곳이겠지요.

Q4. 부장님께서는 간호부를 이끌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리더쉽을 사용하시나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려고 합니다. 또, 다른 간호사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하여 입사한지 100일 되는 신규간호사와의 만남을 규칙적으로 가지며, 1년에 두 번씩 전체 간호사대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합니다. 또, 병동마다 각 분야의 리더를 만들어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노력합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은 병원 중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동창들이 모이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는데, 야유회나 회식 등을 통하여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합니다.

Q5. 그러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잘 할 수 있고 원만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가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6.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74학번이라서 77년에 졸업하고 80년에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인과 근무를 하였고 그다음에 내과에서 근무하다가 내과 수간호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비인후과 수간호사와 특실 수간호사, 이브닝 감독, 소아간호과장, 간호행정팀장을 하면서 행정과 경영에 대한 업무를 익혔습니다. 요즘 간호사들은 한 파트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부장을 맡고 있는 저에게는 여러 파트에서 일해 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가능하면 많은 파트에서 일해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간호부장은 간호부 일 외에도 병원 관리에 참여하므로 각종 행정 업무나 재무, 통계 등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을 매일 매일 체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간호부장이 되기까지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 분당서울대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려운 시기인데 처음 분당서울대병원 개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개원할 때 본원에서 분당으로 온다는 간호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간호사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을 했고 80명 지원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 외에 외부 경력 간호사들을 새로 뽑아야 했는데, 한번에 1200명의 원서접수를 받아 면접을 보고 간호사들 채용하고, 교육시킬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간호사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병원이 이만큼 성장하여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서 근무할 실력 있는 간호사 채용과 교육, 배치 등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Q7.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 는 어떤 것인가요?

물론 간호는 간호지식과 간호 기술도 필요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 바로 간호라고 생각합니다.

Q8. 그럼 분당 병원에 어떤 학생들이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일단 지식이 필수이므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으면 좋겠고 간호 기술도 잘 익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표정이 밝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1등이라도 뽑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성껏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가 환자를 가장 잘 간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Q9.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의 롤모델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세 아들과 한명의 딸을 키우시면서도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희들을 바르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Q10. 평소 습관이나 자기관리 비법이 있으신지?

'항상 내 자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게 됩니다.

Q11. 현재 서울대 간호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호에 대한 자긍심을 갖자' 입니다. 간호사는 24시간 환자를 돌보아야 하므로, 다양한 직종과 함께 일해야 하고 폭넓은 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하고, 병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간호사인데 왜 스스로를 비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간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 Interviewer 10 박수경, 10 장문호

동문탐방 02

조명숙 서울삼성병원 간호본부장(78)

Q1.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간호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에 임하시는 특별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환자들이 진료 때문에도 오지만 간호 때문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병원, 간호사도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저희 간호본부에서 세 가지 간호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화된 간호예요. 차별화된 간호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간호, 개별적인 간호라든지 연속성이 있는 간호, 환자의 안전,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간호, 환자 중심의 간호와 같은 개념이 녹아져 있지요. 근래에는 정보를 많이 주고 교육도 잘 해주는 간호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간호를 통해 환자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해왔어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2020년을 목표로 'Happinnovation'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것에서 환자가 최고의 경험, 따뜻하고 배려를 받는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환자경험을 최고로 하려면 모든 직원들도 근무하면서 좋은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Healthy Work Environment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기쁘게 일함으로 좋은 간호사들이 좋은 간호를 통해 환자들이 좋은 경험을 한다는 선순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근무환경이란 직원들 간, 직종 간 communication과 collaboration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지원과 지지를 하며, 자율성이 보장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져 직원들이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 병원의 최종 목표인 환자의 행복까지 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Q2. 간호본부장을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간호본부장을 꿈꾸지는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1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문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당시 간호 인력의 배치가 많이 부족하였고 전문 간호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새로운 간호를 시도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간호현장에 간호 인력 배치를 많이 했고, 초기부터 종양, 심혈관, 뇌신경분야에 전문간호사를 두어 간호의 새로운 길을 열었지요. 국내에 전문 간호사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연수도 보내주고 실제 역할을 하도록 병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본부장이 되겠다고 꿈꾼 적은 없지만 개원 전부터 시작하여 암센터 개원도 준비하는 등 좋은 간호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보니 어느덧 간호본부장이 되어있었어요.

Q3. 삼성서울병원의 특화된 부분,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만의 강점/장점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삼성은 나름대로의 조직문화가 있고 이 조직문화가 긍정적인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조직문화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조직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부서원들이 새로운 것을 잘 수용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려하고 모두 동참하여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간호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목적의식에 스스로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해 교육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의 장점이에요.

Q4. 학생들의 임상프리셉터 제도가 2년 째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학생 또는 간호사의 교육/실습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병원에서 사실 전인간호, 전문간호도 그렇고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임상경력제도라든지 프리셉터 제도도 앞서서 시도했어요. 임상프리셉터는 신입간호사에게 현장실습기간 중 프리셉터와 1대 1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셉터는 교육을 받아 검증된 간호사들이 프리셉터 기간 중 수당도 받으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경력제도는 간호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의 간호사들에게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이나 적응기간이 길고 많은 교육이 필요하므로 그들의 노력과 전문적인 경험을 특별히 인정해주는 제도에요. 각 단계에 따라 혹은 근무부서별로 필요한 역량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며, 또 실무전문가로서 시험을 보거나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며 매년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과가 되면 전임1, 전임2간호사로 인정받고 매월 상당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교육은 신입간호사로부터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기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암환자부문, 심혈관부문 등 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에게 전문간호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지요. 그 외 간호학생 실습은 국내 간호학생에게 우수한 실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5. 간호란 어떤 것인가요?

환자들이 어떤 간호를 받았나 질적 연구를 해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를 전문적으로 뛰어난 간호사에게 받고 싶어해요. 또 자신의 마음까지 의지하고 싶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주는 사람으로 간호사를 인지하고 있어요. 전문성과 숙련과 같은 것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하는 것이겠고, 마음으로 통하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간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간호는 과학이고 예술이라는 말이 점점 더 실감이 납니다.

Q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후배들이 생각할 때는 간호하면 임상에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그 일이 전부인가보다 하는데 임상간호에서도 그런 직접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길도 있고 기획이나 인사, 질 관리 등 행정 일도 있으며 검사실이나 건진 등 지원부서도 다양하게 있으니 너무 단기적으로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길게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상에서 우수한 후배들이 많이 남아서 일을 해주었으면 더욱 좋겠지요. 적어도 임상에서 전문가가 될 때까지 일을 해보고 앞길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 보통 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나는 이 길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요. 대학은 전문교육기관이잖아요. 그 분야 교육을 받았으면 그 분야 일을 5년 정도는 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3교대에 급급하니까 초반에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된 사람들이 오래 남아 있어야 임상이 점점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임상에 많은 후배들이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 Interviewer 10 천나영, 10 이하늘

동문탐방 03

김경옥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79)

Q1.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간호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특화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아산병원 간호본부만의강점/장점을 소개 부탁 드립니다.

간호사의 힘과 모든 직원의 도전과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사장님이신 정주영 회장님의 슬로건인 도전과 열정과도 일치하죠. 초반부에 아산병원이 설립되었을 때에 미국의 선진간호를 경험하고 오신 분들의 지지와 협동으로 간호부가 정립되어 갔기 때문에 현재 "환자 중심 간호"도 처음 도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율성도 있어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합치하되,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자유로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자랑 중에 하나예요.

Q2. 그렇다면 이런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에 임하시는 특별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호사가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정상적인 근무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호사는 3교대를 해야 한다"는 틀을 깨고 '12시간 근무제'와 '밤번 전담 간호사'를 도입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근무조건이 바탕이 되었을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개개인의 투철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간호에 대해 배우는 것과 병원 현장에서의 실무와의 괴리감이 커서 힘들어 한다고 보기 때문에 간호사의 교육을 중요시 하는 거고, 연구도 중요시 하는 거예요. 전문인이라 하면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요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서 현장에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외국의 선진간호를 보면 임상, 교육, 연구 삼박자가 이루어 지듯이 아산 병원의 간호도 간호의 전문성을 되찾을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여서 이끌어 가고 있답니다. 혹자는 이것이 인력 구조상 아직은 힘든 이야기라고도 하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요.

Q3. 간호본부장, 병원간호사회 이사직, 어머니로서의 역할 등 여러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가정을 중시해서 간호사들의 결혼과 육아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직장과 양육을 함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국가에서나 이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서 아이들도 저를 위해 희생하고, 저도 저를 희생한 적이 있었고요. 여성은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사람마다 개인 역량의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은 작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이 커진다면 직장에서의 역할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직장에서 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 헌신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왔어요. 누구도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돌이켜 보면 TV는 뉴스 빼고는 거의 안 볼 정도였고, 주말에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항상 한 번에 두 가지 일 정도는 항상 해오지 않았나 싶네요. 쉽진 않았지만 저의 목표와 직장의 목표를 맞추어 가면서 생활을 하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Q4. 과거를 회상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간호본부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심장중환자실에 근무했을 때였는데 CHF 환아였어요. 그래서 fluid restriction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아이가 요구르트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죽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MICU에서 폐렴이 있던 어떤 환자 분이 계셨는데, nasal suction 해야 하는 상태였고 안 하시겠다고 몸서리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임무라서 어쩔 수 없이 했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지요. 항상 간호사들은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첫 심장이식 1호 환자가 나왔을 때 참 가슴 뿌듯했던 일도 있었고, 신규 시절에 EKG를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EKG를 너무나 재미있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기억도 남네요.

Q5. 다시 1년차 임상간호사가 된다면, 꼭 하고 싶지 않거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1-2년차 때 꼭 병동을 옮겨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의 신규 간호사들을 반추하여서 보면, 1년도 되지 않아 그만 두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1년까지는 견디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Q6. 임상간호사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간호본부장이신데, 선배님과 같이 간호본부장의 위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학생 때 특정 과에 대해 호불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 비전이 없거나 효용이 없는 과는 없어요. 어느 과를 가도 자신이 할 일이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답니다. 이처럼 현 시대에서 병원 안팎으로 간호의 요구도가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간호사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간호학에 대해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호를 아는데 필요한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현장의 경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 대한 눈이 띄여진 후에 길을 탐색해 보세요. 어떤 길이 어떻게 있는지 선배나 멘토를 찾아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회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국제화 흐름에 발 맞춘 언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답니다. 또 자신만의 취미이자 특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수준까지의 특기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런 준비를 한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Q7. 현재에도 가장 높은 간호본부장의 위치에 계시지만, 선배님은 또 다른 미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선배님이 현재 계획하고 계신 미래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현재 본부장 직을 더 잘 해내기 위해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본부장의 임기를 마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경영학과 간호를 접목 시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Q8.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대 간호대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간호 내에서 꿈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비판을 참 잘하는데 비판에서 멈추지 말고 대안까지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해요. 비판에서 멈추면 불만 그 이하 밖에 안 된답니다. 또 한가지는 영어공부를 꼭 열심히 하세요. 간호학과끼리 경쟁하시면 안돼요. 취업이 잘된다고 자만하고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세요. 겸손과 배려는 한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판하기만 좋아하고 자만하고 배려가 없는 학생은 아무리 명민하여도 그것이 빛을 발 할 수 없답니다. 겸손과 배려가 몸에 밴 후배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력히 말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사랑스러운 우리 후배들 이랍니다..

– Interviewer 09 황신영

동문탐방 04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80)

Q1.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본부장에 임하시는 특별한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제가 간호본부장이 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기 때문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간호를 리드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고요. 저에겐 3000명 정도의 식구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대 병원이 만들어 가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작게는 서울, 크게는 우리나라의 간호의 표준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이 커요.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간호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간호사 개개인이 느끼는 직업 만족도도 대중들이 인식하는 개선된 간호이미지처럼 높아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으로서 추구하고 싶은 철학이 있다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간호 표준을 세우는 것,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직원들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커스라고 생각합니다.

Q2. 서울대학교 간호본부만의 강점/장점을 뽑는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병원 내에 각 부처에서 일하는 인재가 많다는 겁니다. 보직자의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이 많아, 어떠한 사안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힘 있게 진행할 수 있고, 대안을 찾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때도 서로 선후배로 얽혀있다 보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간호계를 이끌어가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간호사는 이 병원에 많이 포진해있으니까 서로간의 의견 개진이 쉽다라는 점과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병원 간호본부만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Q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0년이 넘게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간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떠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challenge는 무엇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학교에 다닐 때는 갈등이 많았었어요. 3학년, 4학년까지도 간호학에 대한 애정이 솔직히 없었어요. 그러나 신규로 병원에 들어가 소아외과 병동 간호사를 하면서 나만의 간호사로서의 철학이 생겼어요.

'내가 좀 못 놀고, 못 쉬지만 내가 이 순간에 여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아이들의 병이 나을 수 있구나. 바로 이거다.' 이렇게 보람있는 일이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 간호사만큼 좋은 직업이 또 있겠어요?

화상병동에서 일할 때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때 중환자간호과정을 교육받으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병원 실무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재밌는게 있었네!' 그 이후 제가 자원해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그 것이 임상을 떠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5년쯤 지나고 보니까 간호학이 괜찮구나. 그래서 '대학원을 가볼까?' 생각도 하여, 석사과정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 또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다음에 박사과정에서는 '간호학 이론이 이렇게 다양했구나, 인간을 보는 측면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등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임상에 남아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던 간호 철학과 '간호' 에 대해 나태해질 수 있을 시기에 새로운 공부로 학문적인 갈증을 풀었던 그 두 가지 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간호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니 소소한 행동의 의미가 비로소 크게 다가왔습니다.

간호라는 일이 험한 일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술(Art)이면서 과학(Science)이라고 느꼈을 때, 주변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완벽한 전문가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나를 다잡고 더욱 일에 매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철학보다는 실무에서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겁니다.

Q4. 간호본부장을 꿈꾸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선배님이 간호본부장이 되는 과정은 어떠하셨나요?

처음 신규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간호본부장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임상이 그저 좋았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할 수 있었죠. 수간호사나 간호과장을 할 때 운이 좋아 일이 잘 풀렸고,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져서 재미를 느껴 열심히 일했어요.

그 과정 중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사함으로 인해 석사, 박사 학문적 갈증도 해소할 수 있었고 수간호사 경험, 중환자간호 교육활동 등 제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되는데에 서울대병원이 많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는 직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신도 업그레이드되고 그 사람이 속한 조직도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돌이켜보면 서울대병원과 궁합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Q5. 임상간호사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간호본부장이신데, 선배님과 같이 간호본부장의 위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간호본부장이 되는 과정에는 위험한 고비가 굉장히 많을 거에요. 일반 간호사와 간호관리자는 많이 다르답니다. 간호사는 그 초점이 환자에게 맞춰져 '이 환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할까?' 생각하지만 수간호사가 되면 부하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그를 움직여 환자를 잘 돌보게 만들어야 해요. 베스트간호사가 베스트관리자는 아니라는 말이 맞아요. 사람을 잘 케어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시기와 직무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이 달라져요. 그 때 마다 맞닥들여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해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간호 본부장이 되는 길은 일단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또 간호본부장이 되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3000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0을 얻을 수도 있고, 아예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큰데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잘 풀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요.

Q6. 현재에도 가장 높은 간호본부장의 위치에 계시지만, 선배님은 또 다른 미래의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선배님이 현재 계획하고 계신 미래의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요?

떠날 때에는 미련없이, 후회없이 떠날 수 있게 지금 현재의 일을 하는 것이 목표에요. 정성껏 매사에 임했기에 또 다른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단기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선배들이 만들어 놓으신 표준 설정을 따르고 3000명의 간호 직원들

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한없이 내 에너지를 다 쏟고 미련없이떠나자는게 현재의 제 위치에서의 목표랍니다. 그 이후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할 것입니다.

Q7. 선배님을 이렇게 성공하게 만드신 자기개발이나 자기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제가 관심있는 분야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심전도를 잘 알기 위해 책 한 권을 독학으로 다 공부했어요. 그 후 판독이 자유로워졌을 때의 그 쾌감!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몰입해서 다 봤어요. 뭔가 하나의 주제가 주어질 때 마다 제 것으로 만드는 점이 저의 자기개발의 노하우랍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100을 알 때 그 중 10을 표현하는 것과 10을 알 때 10을 표현하는 것과는 역량이 확실히 다르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백분 활용하고, 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많이 잡았어요.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오롯이 강의할 내용이 나의 지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지식함양에 도움이 된답니다.

Q8.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대 간호대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본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서울대 간호대를 지원해서 왔을 때에는 개개인 모두가 인재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난 뭘 해도 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이 든다고 중간에 병원을그만 두는 경우를 보면 정말 아쉬워요. 스스로 '난 귀한 존재이며 잠재력이 많은 존재이다.' 라 생각하고 경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한 해 병원에 입사하는 간호사 중 서울대 간호대 출신이 적은만큼 이들은 정말 소중해요. 만약 여러분이 임상에 남아서 새로운 도약을 기다릴 때는 임상에 한 번 심혈을 기울여 몰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의 일로 만들어 즐겼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수간호사를 해보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수간호사까지는 무조건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해요. 수간호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요.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수간호사에요. 실무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있으면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져요. 인사관리, 갈등조정 등 어디가서 뭘 하던지 꼭 필요한 덕목을 기를 수 있답니다. 코디네이션, 뒤쳐지는 사람까지 함께 이끌어가는 능력 등 어느 세상, 어느 조직에 가도 그 능력발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빼어난 인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간호를 위해 꽃 피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말 더 붙여주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간호사의 힘을 난 믿어요.

Interviewer 10 최수정, 10 황진경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2년 3월 1일~2012년 8월 31일

동문	대학원	기타
장선주(1998)	장애경	재활간호학회
조동란(1970)	허성환(2011 박사졸 허보윤 학부모)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여경희(1981)		한유예강회
정현명(1992)		한국간호과학회
김희영(2012)		여성건강간호학회
방경숙(1985)		대한스트레스학회
이은옥(1963)		대한종양간호학회
최명애(1970)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이명선(1975)		한국재난간호사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대한조산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간호대학 발전기금 문의처: 02-740-8802